

아시아의 價値와 地球環境

노응희 명예교수 (서울대 환경대학원)

I. 아시아經濟의 어제와 오늘

II. 自然觀과 環境保護

I. 아시아經濟의 어제와 오늘

1. 情報化時代의 犧牲羊 아시아經濟

미국의 미래학자 「다니엘 벨」이 脫工業化社會의 도래를 내다본 것은 1960년대의 일이었다. 産業革命후 200년 동안 세계를 휩쓸어 온 工業化의 熱望에 찬물을 끼얹는 未來豫測이라서 크게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 工業社會의 뒤를 이어 情報社會가 도래하였음을 의심하는 자는 아무도 없다. 인터넷通路에 접근 못해 본 컴맹조차 입만 열면 정보화시대의 도래를 거품을 물고 떠드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 時代的 流行語의 참뜻을 모르고 잠자다가 코를 찢리고 있다. 건국후 두 번째로 맞는 國家危機라는 IMF事態가 그것이다. 泰國에서 발단된 國際金融危機는 지금 아시아 全域을 휩쓸고 있다. 그리고 이 사태는 지금까지 세계의 碩學들이 21세기를 전망한 “西歐優位時代의 종말과 아시아 資本主義의 躍進”이라는 장미빛 예측을 산산조각으로 분쇄해 버렸다. 우리나라도 例外일 수는 없어 이 위기에 말려들었고, 때마침 실시된 대선을 통해 憲政50年史에 처음있는 水平的 政權交替의 계기로 되었고 새로 등장한 國民政府의 中央集權의 힘의 統治를 正當化시켜 주고 있다. 그리고 反面教師的 教訓을 얻기 위해 國會의 聽聞會도 있었다. 그러나 그 成果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한 것 같다. 그것은 前職大統領이나 그 次男이 證人席에 不參하였다거나 經濟高位官

僚들의 하나같은 自己弃明的 答弁때문이 아니었다. 問題의 本質을 파악 못하고 政經 癒着의 시각에서 지난날의 文民政府를 규탄하는 政治報復劇으로 國民의 눈에 비쳤기 때문이다. 그러면 短期外債를 빌려다가 國內에서 長期貸金놀이를 한 돈장사 꾼들의 불장난이 몰고온 外貨危機와 國家的 破産을 모면하기 위해 “아시아的價値”를 抹殺하려는 IMF의 급전을 돌려쓰고 構造調整에 고민하는 事態를 몰고 온 危機問題의 本質은 무엇일까? 바로 情報技術의 발전에 따른 國際金融市場의 뒤바뀐 모습을 直視하지 못한 過誤가 正答일 것이다. 流行語처럼 써오던 情報化社會의 참모습을 몰랐다는 뜻이다.

90年代에 들어와 美蘇間의 冷戰이 끝나자 美國에는 金融工學, 金融資本主義라는 새로운 말이 자주 거론되었다. 軍事目的으로 開發해온 情報技術分野의 科學技術者들이 國防關係研究機關에서 大量解雇되어 金融分野로 자리를 옮긴 후 새롭게 開拓한 것이 金融工學이다. 金融工學이 만들어 낸 것은 實物經濟가 아닌 先物經濟를 이끄는 金融派生商品(델리버터부)이었고, 이 금융파생상품을 구사하는 업종으로 헤지펀드를 키워주었다.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아무런 거리낌없이 全世界를 누비고 다니게 되었다. 空間과 時間을 극복한 이 投機資金의 出沒에 대응책을 못 세운 것이 바로 아시아 經濟의 悲劇을 나운 根本原因인 것이다.

이리해서 美國은 金融資本主義 主導國家로 짝싸게 변신해서 情報技術의 發展에 미쳐 대응하지 못하는 南美, 아시아국가들을 救濟한다는 名分아래 IMF融資로 몰고가고 美國의 影響力 아래 있는 IMF로 하여금 融資條件으로 美國式原理대로 構造調整을 強要해서 美國式基準의 世界化를 꾀한 것이 國際金融危機問題의 本質이라고 보아야 한다. 問題가 일어나기 1年前에 IMF에 준하는 아시아通貨基金(AMF)을 설치하자는 日本의 建議를 美國이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다는 사실은 情報化時代의 犧牲羊으로 아시아경제를 삼으려는 美國의 意圖를 充分히 짐작케 한다. 情報革命으로 變貌되는 社會構造는 國際金融分野에만 局限된 것이 아니다. 軍事, 政治, 行政管理 모든 分野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事態에 대응하는 對備策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길이 곧 IMF事態의 教訓인 것이다. 情報技術의 발전은 전쟁의 의미를 바꾸어 놓고 있다. “核雨傘에서 情報雨傘으로” 라는 말이 뜻하듯 이제 核이나 미사일 또는 포탄과 같은 致死武器는 컴퓨터 바이러스, 電子波, 暗號技術과 같은 情報技術의 산물인 사이버武器에 자리를 양보하게 되었다. 그리고 인터넷 時

대의 到來는 政治面에서도 輿論指導者의 空洞化와 代議制政治의 空洞化現象을 몰아 오고 있다. 性醜聞에 시달리면서도 不死鳥같이 버티고 있는 지퍼제이트의 주인공 클린턴의 彈劾시비가 좋은 예다. 輿論指導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해 온 뉴욕타임즈와 워싱턴포스트 兩大紙가 大統領辭任을 요구하는 사설을 쓰고, 國民의 代表機關인 下院이 彈劾을 決議했음에도 클린턴은 물러나지 않았다. 인터넷을 통한 國民의 輿論을 백악관은 꺾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情報化社會인 인터넷 時代의 政治인 것이다. 이제 國民政府는 IMF事態를 앞세우고 소홀히해 온 시책들을 再檢討해서 情報化 時代가 몰고 오는 時代的變化에 對應해 나가야 할 것이다. 地方分權推進과 環境保護가 그 焦點이라고 하겠다.

2. 世界속의 東아시아

1) 東아시아의 經濟成長

1997년 泰國에서 발단된 外換變亂이 몰고 온 經濟危機가 아시아국가들을 차례로 엄습할 때까지 東아시아地域의 經濟成長은 눈부신 것이었다. 60년대의 日本, 70년대의 아시아 NIES(韓, 台, 新, 香 등 4龍으로 대표되는 新興工業經濟地域), 80년대의 ASEAN(泰, 馬, 印尼 등으로 대표되는 東南아시아地域), 90년대의 中國과 越南과 같은 社會主義國家들이 마치 기러기편대(flying geese)모양으로 時差를 두고 뒤를 이어 비약적인 經濟成長을 이룩해왔다(<表-1> 참조).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지역의 實質經濟成長率은 70년대 5.6%, 80년대 6.9%, 90년대(90-94년) 7.4%이고 90년대의 成長率은 세계평균의 2배로 되어 있다. 그 결과 아시아지역의 世界全體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0년의 14%에서 94년에는 27%로 上昇해서 美國(26%)을 넘어섰고 外換變亂만 없었다면 2000년에 가서 아시아지역은 世界經濟의 30% 이상을 생산해서 EU와 맞먹는 經濟圈域으로 될 것이 예측되고 있었다.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地域國家(NIES, ASEAN, 中, 越)들은 先發工業國家(英, 佛, 美 등)들이 200년 걸리고, 後發工業國家(獨, 伊, 日 등)가 100년 걸려서 이룩한 經濟的 成果를 불과 25년동안에 달성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名目國內總生産은 60년대(10億7,700萬달러)에 비해 90년대(90-94년, 3,375億100萬달러)에는 313배가 늘었고, 1人當所得도 60년대(143달러)보다 54배가 늘어난 90년대(7,660달러)의 成果를 거두고 있다. 이와 같은 아시아지역의

〈表-1〉 東아시아 7개國의 經濟成長率 推移

(단위: %)

국가	日本	韓國	台灣	泰國	馬來	印尼	中國
1960	13.3	1.2	6.3	9.2	-	0.7	-
1961	11.9	5.8	6.9	5.2	-	4.2	-
1962	8.6	2.1	7.9	7.8	-	△0.6	-
1963	8.8	9.1	9.4	8.0	-	△0.4	-
1964	11.2	9.7	12.2	6.7	-	4.8	-
1965	5.7	5.7	11.1	7.8	-	0.0	-
1966	10.2	12.2	8.9	11.5	-	2.3	-
1967	11.2	5.9	10.7	8.1	-	2.3	-
1968	11.9	11.3	9.2	8.1	-	11.1	-
1969	12.0	13.8	9.0	7.9	-	6.0	-
1970	10.3	8.8	11.4	10.6	-	7.5	-
1971	4.4	9.2	12.9	4.9	7.1	7.0	-
1972	8.4	5.9	13.3	4.1	9.4	9.4	-
1973	8.0	14.4	12.8	10.0	11.7	11.3	-
1974	△1.2	7.9	1.2	4.2	8.3	7.6	-
1975	3.1	7.1	4.9	4.9	0.8	5.0	-
1976	4.0	12.9	13.9	9.3	11.6	6.9	-
1977	4.4	10.1	10.2	9.9	7.8	8.8	-
1978	5.3	9.7	13.6	10.5	6.7	7.8	11.7
1979	5.5	7.6	8.2	5.3	9.3	6.3	7.6
1980	2.8	△2.2	7.3	4.8	7.4	9.9	7.9
1981	3.2	6.7	6.2	6.0	6.9	7.9	4.4
1982	3.1	7.3	3.6	5.3	5.9	2.3	8.3
1983	2.3	11.8	8.5	5.5	6.3	4.2	10.4
1984	3.9	9.4	10.6	5.8	7.8	7.0	17.3
1985	4.4	6.9	5.0	4.6	△1.0	2.5	13.5
1986	2.9	11.6	11.6	4.9	1.0	5.9	8.8
1987	4.1	11.5	12.7	9.5	5.4	4.9	11.6
1988	6.2	11.3	7.8	13.3	8.9	5.8	11.3
1989	4.8	6.4	8.2	12.2	9.2	7.5	4.1
1990	5.1	9.5	5.4	11.6	9.7	7.2	3.8
1991	3.8	9.1	7.6	8.4	8.7	7.0	9.2
1992	1.0	5.1	6.8	7.9	7.8	6.5	14.2
1993	0.3	5.8	6.3	8.3	8.3	6.5	13.5
1994	0.6	8.6	6.5	8.8	9.2	7.5	12.6
1995	1.4	8.9	6.0	8.6	9.5	8.2	10.5
1996	3.6	7.1	5.7	6.7	8.2	7.8	9.7
1960년대	10.4	7.6	9.1	8.0	-	3.0	-
1970년대	5.2	9.3	10.2	7.3	8.0	7.7	9.6
1980년대	3.8	8.0	8.1	7.1	5.7	5.7	9.9
1990년대	2.2	7.7	6.3	8.6	8.8	8.8	11.6

註 : 1) 國內總生產(GDP)(實質, 自國通貨基準)의 成長率

2) △은 마이너스, - 은 資料 없음

자료 : 日本環境會議編, 아시아環境白書 1997/1998, 1997. p.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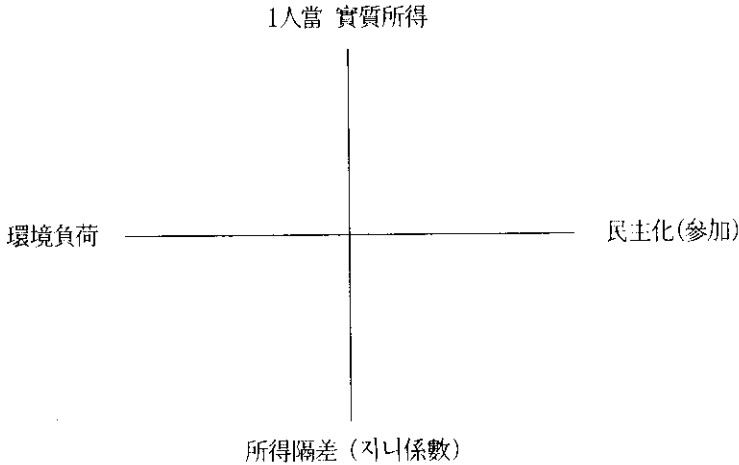
壓縮型工業化를 통한 經濟成長을 놓고 1993년에 世界銀行은 “東아시아의 奇蹟”(The East Asian Miracle)이라는 報告書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1965년부터 1990년대 사이에 동아시아 23개국은 다른 지역보다 빠른 성장을 이룩했는데 이것은 주로 일본과 4마리의 호랑이(韓, 台, 香, 新) 및 印尼, 馬來, 泰國의 東南아시아 NIES와 같은 8개 국가가 이룩한 奇蹟的인 成長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다(이 8개국을 世界銀行報告書는 HPAES: High-Performing Asian Economies 즉 높은 成果를 이룩한 동아시아 經濟地域이라고 命名하고 있다) 물론 동아시아지역의 經濟成長을 奇蹟으로 보는 世界銀行의 평가와는 달리 이것을 「竹馬經濟」라고 冷笑的인 評價切下를 하는 視角도 없지 않았다. P. Krugman 教授(스탠포드大學)는 東아시아의 經濟成長은 단순히 勞動과 資本의 投入量이 증대한데서 온 結果(input driven growth)일 뿐이고 그와 같은 投入은 계속되지 못한다고 하였다(The Myth of the Asia's Miracle, Foreign Affairs, Nov./Dec., 1994). 不幸하게도 그의 判斷이 들어맞아 脫冷戰時代의 副産物로 美國에서 擡頭된 金融工學(軍事研究機關에 從事하다가 減員당한 技術者들이 金融部門에 흡수되어 이룩한 情報技術)이 만들어 낸 델리버티브(金融派生商品)를 활용하는 投機資本(헤지펀드)의 犠牲物이 되어 1997년을 정점으로 東아시아地域의 經濟成長은 停滯의 늪에 빠지게 되었다.

2) 經濟開發의 目標

1949년 미국의 트루만大統領이 대통령 就任辭에서 밝힌 低開發이란 말은 20世紀 후반기 전시기를 통해 全世界大部分의 국가를 開發熱氣라는 狂風 속으로 몰아 넣었다. 低開發이라는 바람직하지 못한 狀態에서 벗어나 보려는 여러 가지 노력이 시도되었고 開發目標은 工業化를 통한 近代化란 이름의 美國化 이었다.

開發經濟學의 권위자인 Michael P. Todaro教授는 開發을 「모든 社會制度가 個人 또는 社會的組織의 欲求를 充足할 수 있도록 物質的으로나 精神的으로 보다 나은 方向으로 향하는 여러 종류의 變化」라고 定義하고 있다(Economic Development, 5th ed, 1994). 따라서 開發이란 動態的이고 또한 比較概念이다. 動態的이란 變化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比較란 개발前과 后를 評價하는 體制를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開發은 目標가 중요하다.

〈圖 1〉 開發目標 - 「黃金의 四角形」



開發이란 (圖-1)에서 보는 바와 같이 黃金의 四角形(開發目標)을 時間의 경과와 더불어 플러스(+)**방향으로 확대(所得, 民主化의 경우) 또는 마이너스(-)방향으로 확대(所得隔差·環境汚染의 減少)시키는 것을 뜻한다.** 물론 4개의 開發目標사이에는 트레이드 오프(二律背反)관계가 있기 때문에 동시에 달성하기란 쉽지 않다. 開發의 初期段階에서는 1人當所得이 증가함에 따라 所得配分の 不平等化(所得隔差의 擴大=지니係數의 上昇 (<表-2> 參照))가 진행되는 수가 많다. 環境과 經濟成長의 關係에서도 70년대에 우리가 경험한 바와 같이 環境問題의 거론을 禁忌視하면서 經濟成長만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高度의 經濟成長을 實現해 온 아시아國家들은 「開發獨裁」라고 불렸을 만큼 民主化나 人權을 犧牲시킨 경우가 많았다. 工業先發國의 經驗에 따르면 1人當 實質所得이 어떤 臨界水準에 이르면 4개의 目標사이의 트레이드 오프가 해소되고 동시에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1人當實質所得의 증가가 雇傭機會를 확대시키고 所得隔差를 축소시킴과 동시에 環境保全이나 開發節次를 重視하는 方向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이때의 臨界水準은 國民들의 價値觀, 國家의 政策, 開發成果의 浸透度(trickle down) 등에 따라 다르다고 하겠다.

3) 經濟成長과 人間開發

進歩思想의 産物인 成長은 자칫 量的인 확대나 팽창을 뜻하기 쉽다. 經濟開發이라

는 이름아래 經濟成長을 추구하는 것도 대량의 財貨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자체를 중요시하고 그것이 人間生活을 풍요롭게 하는데 어떤 役割을 하는가에 대한 평가를 소홀히 하기 쉽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UNDP는 1990년부터 人間開發報告書(Human Development Report)를 발간해 왔다. 이것은 UN이 1960년대 이후 추진해 온 3차례의 開發年代(development decade) 計劃推進에서 얻어진 경험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試圖라고 할 수 있다. 제2차세계대전후 帝國主義列強의 희생자였던 植民地들이 앞을 다투어 독립했다. 일부국가는 社會主義路線을 또 다른 국가는 資本主義路線을 그리고 南美의 一部國家들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混合經濟路線을 택했다.

그러나 모든 국가들은 국민의 利益이 되고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開發은 經濟成長이라고 굳게 믿었다. 이 成長神話는 成長의 利益이 곧 널리 퍼져서 전체국민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는 信念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노벨상受賞者인 Simon Kuznets의 이른바 “쿠즈네츠 曲線”이 이를 뒷받침해 주었다(“Economic Growth and Income

〈表-2〉 東아시아각국의 貧困과 所得隔差指數

	貧困線以下의 人口比率(%)				上位20%의 高所得世帯의 下位20%의 低所得世帯에 대한 所得의 比率(%)	지니係數
	1977-1987		1980-1991			
	都市	農村	都市	農村	1981-1993	1975-1988
韓 國	18	11	5	4	5.7	0.36
香 港	-	-	14	-	8.7	0.45
싱 가 포 르	-	-	10	-	9.6	0.42
中 國	-	10	9	13	6.5	0.42
인도네시아	26	44	20	16	4.9	0.31
泰 國	15	34	7	19	8.3	0.47
필 리 핀	50	64	40	54	7.4	0.45
말 레 지 아	13	38	8	23	11.7	0.48
印 度	40	51	38	49	4.7	0.42
파 키 스 탄	32	29	20	31	4.7	0.36
방글라데시	86	86	56	51	4.1	0.34
스 리 랑 카	-	-	15	36	4.4	0.45
네 팔	55	61	19	43	4.3	0.53

주: 貧困線이란 生活에 필요한 최저필요식품 및 비식품을 만족할 수 있는 所得

지니係數의 範圍는 0부터 1까지이고 0은 완전한 平等이고 1은 完全한 不平等을 나타낸다.

자료: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各版에서 作成

Inequality”, American Economic Review, vol.45, March 1995, pp.1.-28). 그는 1人當所得이 1000달러 이하의 나라에서 경제성장이 加速되면 지니係數로 측정된 소득 격차는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성장이 계속되어 소득이 일정수준에 이르러 完全雇傭狀態에 가까워지면 노동수급상태가 곤란해져서 實質賃金所得이 오르기 때문에 소득격차는 줄어든다고 하였다. 즉 지니係數와 1인당소득은 「逆U字型」관계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成長神話의 전제가 된 樂觀論은 東아시아地域國家들을 제외하면 적중하지 못했다. 그것은 公正한 分配를 위한 적절한 施策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새롭게 국제사회의 개발론으로 등장한 것이 基礎需要(basic needs)론이었다. 食糧, 健康, 教育과 같은 풍요롭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手段을 모든 사람에게 제공하자는 주장이었다. 기초수요의 발상은 所得+公共서비스+參加라는 3가지 部分으로 구성된다. 첫째로 잉여노동력이 있는 나라의 경우 勞動集約的 生産을 통해 소득을 증대시킬 것, 둘째로 政府는 公教育, 家族計劃, 保健醫療와 같은 公共서비스를 확대할 것, 셋째로 公共서비스의 자금은 政府豫算 또는 國際援助로 마련되더라도 그 計劃立案과 實施는 受益者들의 참가를 통해 이룩할 것 등이 그것이다. 그러면 많은 국가들은 公共서비스의 提供에만 치중해서 결국 「가난한 사람의 숫자를 헤아려서 見積을 낸후 物資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支給하는 것」에 그친다는 批判이 따랐다. 이것은 Top down方式의 典型的 國家施策의 例로 되었다. 이리해서 80년대 초엽에 국제사회를 휩쓴 것은 構造調整이었다. 成長의 鈍化, 累積債務의 危機, 貿易條件의 惡化 등을 是正하기 위한 構造調整計劃이 人間을 중심으로 한 開發概念을 뒷전으로 몰아냈다.

원래 世界銀行이나 IMF의 목적은 原油價 상승, 先進國의 景氣減退, 金利上昇, 外資導入의 低下와 같은 惡條件에 놓인 開途國을 도우려는 意圖였다. 그러나 원래의 의도를 성공 못한 채 長期的인 調整에로 말려들었다. 開途國經濟를 美國이 주장하는 自由市場政策路線으로 再編하도록 앞장서게 된 것이다. 國家役割의 축소, 補助金의 폐지, 價格의 자유화, 국제무역·국제금융의 流動資金에 대한 經濟開放 등을 強要하게 되었다.

이렇게 自由化, 民營化, 調整문제가 진행되는 동안 貧困層에 대한 政策決定者들의 배려는 멀어져만 갔다. 長期的 安定과 成長을 위해 短期的 貧困의 增大는 필할 수 없는 대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狀況아래서 일어난 운동이 「人間的 모습을 지닌 構造調整」운동이었다. UNICEF, NGO, 勞動組合, 教會, 國際勞動機關, 女性

解放團體등이 이를 主動했다. 이러한 開發비전에 대응하는 方便으로 등장한 것이 UNDP의 人間開發論이었다. 先進國과 開發國, 男性과 女性, 現世代와 未來世代에 있어서의 人間開發의 모든 측면을 망라해서 인간이 놓여있는 조건을 改善하기 위한 넓은 接近方法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UNDP는 1990년부터 人間開發報告書를 발간하고 그 속에서 人間開發指數(Human Development Index: HDI)를 놓고 각국에 順位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어떤 나라는 所得順位에 비해 HDI順位가 높고, 어떤 나라는 그 반대로 되어있다. UNDP가 마련한 HDI는 壽命指數(life expectancy index), 教育指數(educational attainment index), GDP指數(GDP per capita(PPP\$) index)의 3가지 指數를 통해 산정한 것이다. 그리고 174개국을 上位國(0.800以上の 57국), 中位國(0.500에서 0.799까지의 69국), 下位國(0.500未滿의 48국)으로 分類하고 있다. <表-3>은 아시아 각국의 人間開發指數 내용이다.

<表-3> 人間開發指數(1993년 기준)

順位	國家名	出生時 平均 壽命 (年)	成人識 字率 (%)	全教育手 段合計 就學率 (%)	1人當 實質 GDP (ppp달러)	1人當 調整實質 GDP (ppp달러)	壽命 指數	教育 指數	GDP 指數	人間開發 指數 (HDI 值)	1人當實質GDP (ppp달러) 마이너스 GDP순위
3	日 本	79.0	99.0	78	20,660	5,947	0.91	0.92	0.98	0.938	6
22	香 港	78.7	91.5	71	21,560	5,948	0.89	0.85	0.98	0.909	-16
29	韓 國	71.3	97.6	81	9,710	5,837	0.77	0.92	0.97	0.886	9
34	싱 가 포 르	74.9	90.3	68	19,350	5,943	0.83	0.83	0.98	0.881	-21
52	泰 國	69.2	93.6	54	6,350	5,762	0.74	0.81	0.95	0.832	-3
53	말 레 지 아	70.9	82.2	61	8,360	5,814	0.77	0.75	0.96	0.826	-9
83	北 韓	71.2	95.0	75	3,000	3,000	0.77	0.88	0.49	0.714	15
95	필 리 핀	66.5	94.2	77	2,590	2,590	0.69	0.89	0.42	0.665	8
102	인도네시아	63.0	82.9	61	3,270	3,270	0.63	0.76	0.53	0.641	-13
108	中 國	68.6	80.0	57	2,330	2,330	0.73	0.72	0.38	0.609	3
134	파 키 스 탄	61.8	36.4	37	2,160	2,160	0.61	0.37	0.35	0.442	-15
135	印 度	60.7	50.6	55	1,240	1,240	0.60	0.52	0.19	0.436	7
上位國(1-57)平均		73.8	97.2	79	14,922	5,908	-	-	-	0.901	-
中位國(58-126)平均		67.0	80.7	62	3,044	3,044	-	-	-	0.647	-
下位國(127-174)平均		56.0	48.9	46	1,241	1,241	-	-	-	0.396	-
先進國平均		74.3	98.3	82	15,136	5,909	-	-	-	0.909	-
開發國平均		61.5	68.8	55	2,696	2,696	-	-	-	0.563	-
世界全體		63.0	76.3	60	5,428	5,428	-	-	-	0.746	-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1996.

3. 아시아의 價値

1998년 7월 3일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은 9일간의 中國訪問 마지막날 香港에서 「21세기를 향한 미국의 아시아 戰略」이라는 연설을 통해 아시아가 당면한 經濟危機를 통해 이른바 「아시아의 價値」는 정당성을 잃었다고 주장하고 「自由와 民主主義, 미국식 투명한 競爭的市場經濟를 바탕으로 21세기의 아시아는 建設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것은 「共產主義에 대한 勝利」에 뒤이은 아시아각국에 대한 일종의 승리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설은 미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경쟁시장, 작은정부, 인권, 개인주의, 법치주의 등 價値觀이 普遍的인 價値이고 이런 가치나 제도를 全世界에 보급시켜야 하기 때문에 「아시아의 價値」는 일고의 값어치도 없다는 얘기이다. 그는 「아시아의 價値」란 「독직·부패, 네포티즘, 癒着, 權威主義的 政治, 政府主導的 經濟運營」 등을 뜻하는 것이어서 미국적 「普遍的인 글로벌 스탠더드」에는 미치지 못하는 前代的인 것이라는 함축을 하고 있다.

돌이켜보면 국제사회에서 「아시아적 가치」를 내세워 人權, 自由, 民主主義를 앞세우고 내정간섭을 하려드는 미국에 소극적으로 저항한 아시아 지도자들은 한국의 朴正熙, 대만의 蔣經國, 싱가포르의 李光耀, 말레시아의 마하틸 등이었다. 이들은 70년대와 80년대에 아시아의 經濟發展을 주도해온 인물들이다. 90년대에 들어와 世界銀行이 「東아시아의 奇蹟」이라고 경탄한 아시아지역의 飛雁型(flying geese)경제발전을 이끌어온 主役들 이었다. 리광유나 마하틸은 經濟의 停滯, 犯罪의 增加, 教育의 荒廢, 家庭의 崩壞를 몰고 온 「西洋의 價値」보다 秩序와 安定, 規律, 家族이나 社會에 대한 責任, 勤勉, 儉約, 集團主義를 중시하는 「아시아적 가치」가 훨씬 優越하다고 주장하며 미국에 대항했던 것이다. 마하틸은 91년에 아시아적 가치를 공유하는 아시아국가들이 뭉쳐 EAEC를 만들자고 제창했다. 이것은 ASEAN국가(그 당시 6개국)와 한, 일, 중 3개국을 합친 동아시아경제협력기구였으나 미국의 간섭으로 유산되었다. EAEC는 日本주도의 이사회경제권인 신판 大東亞共榮圈이라는 것이 이유였다. 마하틸수상이 미국의 미움을 사고 미국을 추종하는 아시아의 지식인들로부터 嘲笑의 대상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것은 90년대 후반기에 일어났다. 「플라자합의(1985년)」 이후 構造調整이라는 미국의 강요를 받아들인 일본의 경제는 미국경제의 再活性化와는 대조적으로 장기침체의 늪에 빠졌고 97년 7월 태국의 바자츠危機이후 아시아를

핍쓸은 경제위기는 IMF를 통해 아시아지역에서의 미국의 입장을 강화시켰다. 이리해서 「아시아적 가치」 논의는 빛을 잃게 되었다. 그러나 아시아의 경제위기는 그 본질적 원인을 파고들어 보면 미국이 말하는 瀆職·腐敗, 네포티즘(족벌주의), 癡着과 같은 「아시아적 가치」나 「아시아型 經濟運營모델」에 있는 것이 아니라 換率의 변동이나 金利差를 찾아 움직이는 短期國際資本의 大移動에 비롯된 것이고 金融의 自由化·世界化를 배경으로 하는 이른바 「글로벌 파이낸스」의 不安定性에 원인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나라들이 外換導入을 위해 金融을 自由化하고, 通貨의 美달러 聯動化, 高金利政策등 마크로정책을 채용해 놓고 그 뒤의 경제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이유도 부정할 수는 없다. 단기국제자본의 대이동에 따른 金融危機는 80년대 이후 10여년 동안에 중남미, 영국, 유럽, 스칸디나비아, 멕시코에서도 일어났고, 더욱이 아시아경제위기는 러시아나 브라질에까지 비화되어 세계 최대의 純債務國家인 미국의 달러와 株式市場을 뒤흔들고 있다. 그리고 通貨유로의 탄생은 「글로벌 스탠더드」의 미국경제가 國際金融資本의 移動을 통해 危機에 빠지게 할 可能性을 배제할 수 없다.

태국의 通貨危機로 시작된 아시아의 經濟危機는 미국이 IMF를 앞장세워 미국의 아시아戰略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통화위기로 外貨不足의 위기가 생겨 아시아 각국은 IMF에 지원을 요청했다. IMF는 지원에 앞서서 緊縮財政과 金融團束같은 貸付條件(conditionality)을 제시해서 비효율적인 금융기관의 퇴출과 살아남는 金融機關의 自己資本比率의 제고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資金不足이 생겨 企業의 자금조달이 곤란하게 되어 經濟活動이 저하되어 經濟危機를 몰고 왔다. 이것은 IMF가 지금까지 실시해온 措置로서는 이례적인 것이었다. 그리고 構造改革을 강요했다. 이것은 「아시아적 가치」의 전면적인 부정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韓國의 財閥과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토族閥의 해체를 요구했다. 그리고 終身雇傭, 年功序列과 같은 아시아적 가치에 의한

經營方式을 白紙化시키라고 요구했다. 外國投資의 誘導를 위한 각종 規制緩和와 外國企業에 의한 M&A規制緩和를 요구하고 각종 構造調整을—다시 말해서 아시아의 價値를 미국식 價値로 바꾸는 작업을—IMF가 앞장서서 추진시켰다. 이러한 外壓은 문제된 나라들의 指導者들을 즐겁게 해준 부수적 효과도 있었다. 외압을 통해 국내에서 中央政府의 권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어찌되었던 아시아 通貨危機

〈表-4〉 東北아시아 각국 및 美國의 基礎資料

	韓國	北韓	日本	中國 (臺灣香港 제외)	美國	世界計
1. 面積(1,000km ²)	99	121	378	9,561	9,364	135,600
2. 人口(1995, 100萬人)	44.9	24.0	125.2	1,221.5	263.1	5,716
增加率(1990-95 年平均, %)	0.9	1.9	0.3	1.1	1.0	1.7
密度(1995, 1km ² 當人)	452	198	331	127	28	42.1
65歲以上人口比率(1993, %)	5.5	-	15.2	5.6	12.7	-
出生時 平均壽命(1995, 年)	72	-	80	69	77	67
3. GNP(1995, 100萬달러)	435,137	22,300	4,963,587	744,890	7,100,007	-
4. 1人當GNP(1995, 달러)	9,700	957	39,640	620	26,980	4,880
5. 經濟成長率(1995, %)	9.0	-4.5	2.4	10.5	2.0	-
6. 年平均인플레이션率(1985-95, %)	6.7	-	1.4	9.3	3.2	-
7. 輸出額(1995, 100萬달러)	125,058	960	443,265	148,797	584,743	4,921,360
8. 수입액(1995, 100萬달러)	135,119	138	335,991	129,113	770,852	5,004,682
9. 銀行預金金利(1995, %)	6.7	-	0.7	9.3	5.9	-
10. 1次에너지(1994, 石油換算, 100萬톤)	-	-	-	-	-	-
生産總量	19.0	63.2	85.2	799.8	2,265.4	8,325.4
消費總量	117.7	69.2	434.9	764.8	2,078.1	7,880.6
海外依存度(%)	83.9	8.6	80.4	-4.6	17.6	-
消費年平均增加率(1980-94, %)	9.5	-	2.8	5.0	1.6	1.0
1Kg當 GDP(1987, 달러)	1.8	-	6.2	0.7	2.6	2.4
CO ₂ 排出量(1992, 100萬톤)	290	-	1,093	2,668	4,881	21,347
1人當CO ₂ 排出量(1992, 톤)	6.6	-	8.8	2.3	19.1	4.0
11. 各國의 農業(1994)	-	-	-	-	-	-
國土面積對比農耕地比率(%)	20.7	16.6	11.7	10.0	20.1	10.8
就業人口對比農業就業人口比率(%)	13.5	34.1	5.5	71.3	2.6	47.5
穀物生産量(100萬톤)	6.92	5.24	13.44	416.80	277.00	1,896.10
耕地 1ha當 收穫量(Kg)	5,864	3,386	5,737	4,664	4,647	2,729
穀物自給率(%)	35	81	30	99	138	-
耕地 1ha當 肥料消費量(Kg)	467.2	376.5	403.2	308.8	102.7	85.0
耕地 1ha當 農藥使用量(1984, Kg)	566	-	666	160	197	-
肉類生産量(1,000톤)	1,427	259	3,251	53,016	33,849	207,113
肉類自給率(%)	87	-	6.7	101	103	-
國土面積對比森林面積(%)	65.1	61.1	66.2	13.6	31.6	30.9
木材伐採高(1,000m)	6,485	4,876	32,722	305,961	491,748	3,439,910
木材輸入量(1,000m)	11,688	-	56,303	7,022	41,026	228,893
漁獲量(1,000톤, ()內數字는 世界順位)	2,700(10)	1,800(14)	7,363(4)	20,719(1)	5,941(5)	109,585
12. 各國의 工業(1995)	-	-	-	-	-	-
銑鐵生産(1,000톤)	22,344	6,000	74,905	101,709	50,890	537,231
粗鋼生産(1,000톤)	36,772	6,000	101,640	92,968	96,192	753,000
1人當鋼消費(1994, Kg)	724	302	636	98	508	133
鐵鋼輸出(1,000톤)	9,661	-	22,989	-	7,247	-
自動車生産(1,000대)	2,526	-	10,196	1,435	14,393	49,844
造船竣工實績(1996, 1,000總噸)	6,680	-	10,049	906	-	24,187
컴퓨터生産額(1993 實績, 100萬달러)	3,655	-	43,064	2,012	44,785	149,744
通信器機生産額(")	2,351	-	25,290	2,280	65,233	147,766
工作機器生産額(1994, 100萬달러)	854	-	6,708	1,550	3,780	28,199
窒素肥料生産(1,000톤)	644	630	800	16,980	14,017	80,402
프라스틱生産(1,000톤)	6,689	-	14,027	-	35,701	121,268
시멘트生産(萬톤)	5,610	1,700	9,047	40,068	7,532	133,000
13. 自動車保有台數(1994, 100名當 台)	16.7	-	52.0	0.8	76.0	11.3
14. 電話加入回線數(1994, 100名當回線數)	39.7	-	48.5	2.3	59.8	10.9
15. 高等教育就學率(1993, %)	54.8	-	29.1	3.8	79.7	-
16. GNP對比教育支出比(1994, %)	4.5	-	4.7	2.6	5.5	-
17. 政府支出對比教育支出比(1994, %)	16.0	-	16.6	12.2	12.3	-
18. TV普及(1994, 人口 1,000名當 台)	323	-	681	189	817	-
19. 道路交通事故死亡率(1995, 人口 10萬名當)	23.0	-	8.5	-	15.6	-
20. 道路交通事故負傷者率(")	739.7	-	737.0	-	123.3	-
21. GDP對比國防費支出比(1995, %)	3.4	25.2	1.1	5.7	3.8	4.2
22. 發電量(1994, 億Kw, 괄호안은 原子力 發電比率)	1,860(31.5)	370(0)	9,643(27.9)	9,281(1.5)	32,683(19.6)	126,808(17.4)

는 금융기관의 不良債權확대를 통해 金融危機로 되고 또한 貸付回避로 인한 「流動性危機」와 「內需縮小」를 통해 「經濟危機」노되어 지금 동아시아 각국의 生産體制의 기반 자체가 큰 打擊을 받게된 「産業危機」로 몰아가고 있다. 그리고 아시아 각국은 인도네시아의 華人文제를 비롯해 국내 失業者들 問題로 사회가 분열되고 政治가 혼란상태에 빠지며 국가간의 관계도 미묘하게 틈이 가기 시작해서 「아시아적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圈域化는 점차 힘들게 되어가고 있다.

아시아 경제성장의 선두주자 日本은 지역내의 霸權을 염려하는 미국의 의도대로 積極的 자세를 지니지 못한 채 아시아의 經濟危機를 바라보고만 있는 형편이다. 97년 9월 香港에서 열렸던 IMF總會에서 일본이 提案한 아시아通貨基金 構想이 美國의 반대로 무산되지만 않았더라도 시간이 필요한 構造改革-IMF가 대신 밀어주고 있는 「美國的制度와 價値」를 받아들이기 위해 힘겨운 노력을 자초하지 않았을는지도 모를 일이다. <表-4>는 東北亞國家들과 美國의 各種 기초자료를 世界全體와 對比해 본 內容이다.

II. 自然觀과 環境保護

1. 文明의 떠돌이 길과 自然保護

文明은 숲이 있는 곳에서 발생해서 그곳을 砂漠으로 만들고 또 다른 숲이 있는 곳을 찾아 떠돌이 길을 더듬어 왔다.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에서 발생한 문명은 그리스나 로마로 그리고 북유럽으로 옮겨가고 그것이 또한 미국이나 동아시아로 옮겨왔다. 아직 이곳에는 울창한 숲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 북유럽이나 미국 또는 동아시아의 숲이 소멸되고 그 지역의 문명이 멸망한다면 아직도 熱帶雨林이 남아있는 동남아시아나 남미로 떠돌아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 지역의 숲도 온 지구를 뒤덮고있는 현대문명의 여파로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農業革命이라는 새로운 文明을 인류가 마련할 때까지 狩獵採取生活을 해 온 인류는 自然의 일부였고 다른 生物들과 共存可能한 生活을 해왔다. 그러나 농업혁명을 통해 인류는 食糧의 計劃的栽培方法을 익혀 植物을 지배하게되고 動物을 家畜으로 지배해서 동물에게 노동을 강요하고 젓과 고기를 마음 되로 먹게 되었다. 農業과 牧畜은 넓은 밭과 放牧地가 필요했기에 마구잡이로 숲을 파괴했다. 약 1만 2천년 전에 발생한 農耕牧畜生活은 약 5

천년 전에 都市文明을 출현시켰다. 거대한 神殿이나 宮殿을 짓고 배를 만들며 금속을 製鍊하기 위해 더 많은 木材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리해서 숲은 전답이나 방목지로 바뀌고 벌채한 목재는 建築 造船 金屬製鍊 을 위해 쓰이게 되어 森林의 伐採나 파괴는 一石二鳥의 生産性增強手段이 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파괴된 자연환경은 더 이상 文明생활을 지탱할 수 없게 만들고 결국 숲이 있는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이것이 文明의 떠돌이 길이다.

우리는 自然保護라는 말을 자주하고 자주 듣는다. 자연을 보호(protection)한다는 말은 자연을 保全(conservation)하고 保存(preservation)하는 것을 포괄하고 있다. 保全이란 장래의 消費에 대비해서 天然資源을 節約(save)하자는 뜻이고 保存은 自然을 있는 그대로 유지보호하자는 뜻이다(John Passmore).

保全을 將來의 世代를 위한 오늘 우리들의 節約이라고 한다면 保全을 위해서는 두 가지 假定이 필요하다. 그 첫째는, 우리들이 절약하지 않는다면 틀림없이 장래세대는 고통을 받게될 것이라는 가정이고, 둘째는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들은 원치 않으니까 고통을 방지해 주거나 완화시켜주도록 행동하는 것이 우리들의 義務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가정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가정에 모두가 滿意를 보지 못하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있다. 첫째로, 資源은 無限하고 科學技術의 發達は 모든 問題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樂觀論이다. K. Boulding이 카우보이 經濟에서 宇宙船 經濟라는 간결한 말로 資源의 有限性을 역설하고 「로마클럽」 제1차 보고서인 「成長의 限界(1972년)」가 실증적으로 資源의 有限性을 제시했지만 총론적 찬성을 얻고 있는데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미래학자 H. Kahn이 100년내의 成長停止라는 悲觀論을 펴낸 「成長의 限界」를 비판하면서 그것이 미래를 예측하는 변수 가운데 과학기술의 발달을 놓지 않는 잘못이 있다고 하며 100년후의 인류의 생활은 1970년대의 프랑스인들의 平均生活水準이 보장되도록 과학기술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주장 등이 이런 낙관론의 예이다.

둘째로, 未來의 世代를 위해 왜 오늘의 우리가 犧牲해야하나 라고 하는 義務論의 근거가 확실하지 않다는 점이다. 西歐思想속에 「人類의 未來」라는 이념을 導入한 사람은 아우구스티누스였다. 그러나 그조차 人類가 未來를 결정할 수 있다고는 주장하지 않았다. 未來는 神의 뜻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은 모두 神이 알아서 마련해주기 때문이다(마태복음 제6장제31절). 칸트哲學은 人間은 바로크 建築의 正面玄關에 세워진 女像柱(caryatid)처럼 未來라는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라

주장했으나 未來를 모두 인간이 형성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정도로 인간을 믿었던 것이 아니다. 다만, 그는 人間은 理想을 추구하는 道德的 熱意가 있고 그러한 理想은 未來의 世代만이 실현할 수 있는 까닭에 未來의 世代에 대한 義務가 있다고 하였다. 각종 公害나 環境汚染에 시달리고 있는 現代人들에게 있어서 그 원인이 近過去의 先人들의 그릇된 行動選擇에 연유한 結果라고 하는 것을 자각해서 이를 反面教師로 삼아 未來世代를 위한 義務를 首肯할 수 있게 된다면 다행이라고 하겠다.

셋째로, 미래를 위해 오늘을 희생시키는 것이 확실하게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신념을 가질 만큼 확실하지 않다는 未來에 대한 不確實性이 오늘의 희생을 주저하게 만드는 功利論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J. 벤덤의 功利主義에 따르면 인간은 自己行動을 결정함에 있어서 자기행위의 영향이 미래세대의 快樂과 苦痛에 어떻게 미칠 것인가를 당연히 생각하게 된다. 이러한 사고에 따른 「公平의 原理」를 위해 確實하게 未來世代에 害를 끼칠 行爲는 삼가야 한다고 믿고있어도 일부 保全論者들이 호소하고 있는 犧牲을 正當化시킬 만큼 뚜렷한 原理로 믿어지지 않는 것이다. 우리들은 원치 않는 害惡이 올 것이라고 생각해도 그것이 不確實한 것이라면 無視해 버린다.

市場經濟는 最大多數의 最大幸福에는 특별한 관심이 없고 未來의 供給을 위해 現在의 需要를 줄이려하지 않는다. 地球상의 資源이 全體量으로 보아 減少되어가고 있음에도 그 資源價格이 현재의 시점에서 下落하고 있는 것이 市場論理이다. 經濟學者들은 生物學者들에 비해 短期的思考에 머무르고 있다.

2. 自然觀의 變化

인간이 자연을 보는 견해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目的論的(有機體的)自然觀과 機械論的 自然觀이 그것이다. 이것은 자연을 物理學的으로 보느냐 生物學的으로 보느냐에 따른 區分이다. 자연을 물리학적으로 보면 자연이란 物體의 집합이고 자연의 변화란 물체의 因果的인 運動으로만 보인다.

따라서 자연의 변화에는 目的이나 意味가 있을 수 없다. 변화의 유일한 원인은 다른 물체에서 전달되는 운동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서 자연을 생물학적으로 보면 자연의 중심에 있는 것은 生命體이고 그 모든 變化는 生命의 실현으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자연의 변화에는 목적이나 의미가 있고 결국 변화란 目的의 實現過程으

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유럽의 고대나 중세를 통해서 널리 퍼졌던 중심적인 自然觀은 아리스토텔레스적 자연관 즉 目的論的 自然觀이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을 天上界(달보다 위에 있는 세계)와 地上界로 구분하고 地上界를 다시 영혼(프슈케)의 유무에 따라 無生物과 生物로 나누었다. 그리고 생물은 영혼(프슈케)의 능력에 따라 ① 營養攝取·生殖能力이 있는 것(모든 동·식물에게 있다), ② 感覺能力이 있는 것(모든 동물은 촉각이 있거나 미각, 청각, 시각, 후각은 각각 다르다), ③ 欲求能力이 있는 것(감각능력으로 구별되는 쾌락과 고통중 쾌락을 추구하는 욕구를 말한다), ④ 場所移動能力, ⑤ 表象能力, ⑥ 理性 등이 있는 것으로 구분해서 자연을 무생물, 하등식물, 고등식물, 연체동물, 곤충, 각갑류, 파충류, 어류, 포유류, 인류로 계층을 매겨 나누고 있다. 그에 의하면 이러한 자연의 모든 존재는 그 자체의 고유한 목적이 있고 全體로서 調和的 秩序(코스모스)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17세기에 들어와서 이 목적론적(유기체적) 자연관은 機械論的 自然觀으로 뒤바뀌게 된다. 이것은 科學革命의 기초였고 갈릴레오(Galilei Galileo, 1564-1642), 베이콘(Francis Bacon, 1561-1626), 홉스(Tomas Hobbes, 1588-1679), 데카르트(René Desartes, 1596-1650), 뉴우턴(Isac Newton, 1642-1727) 등이 기계론적 자연관을 주장한 주역들이었다. 이들은 宇宙는 地球를 중심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고 太陽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자연은 그 자체가 목적을 지닌 存在가 아니라 粒子(原子)로 구성된 物質이며, 自然의 움직임은 內在的인 자체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니고 慣性의 法則에 따라 外的인 힘에 의해 움직인다고 하였다. 이렇게 自然의 唯一한 存在는 物體이고 全體는 部品の 機械的 結合이며 物體의 運動은 인접하는 다른 물체의 운동 때문에 일어나는 까닭에 自然의 모든 변화는 物體상호간의 因果關係的 運動으로 일어난다. 따라서 아무리 복잡한 機械時計라 할지라도 톱니바퀴나 흔들이(振子)와 같은 단순한 부품으로 分解해서 그것을 조사하면 時計의 기능을 알 수 있는 것처럼 人間이 自然現象을 理解하려면 그것을 觀察해서 기본적인 構成要素를 밝혀내고 實驗을 통해 각 구성요소의 性質을 조사해서 끝으로 要素間의 數量的인 관계만 파악하면 된다. 自然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物體를 찾아내서 그 性質만 밝히면 自然은 統一的으로 理解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리해서 自然은 目的이나 本質을 지닌 것이 아니라 오직 物體의 量的·機械的 結合으로 되었고 因果法則에 따라 움직이는 것으로 되어 自然의 價値는

人間에게 有用한가 여부로 決定되게 되었다.

3. 宗教와 環境

하버드大學의 S. Huntington教授는 文明衝突論을 주장해서 注目을 받았다. 21世紀는 西歐의 基督教文明圈과 東洋의 儒敎·이슬람敎文明圈이 衝突하고 對決하는 時代가 된다는 主張이다. 이 主張에 대해서는 階級支配를 전제로한 투쟁적인 一神敎의 歷史觀에서 나온 發想이라는 批判이 있다. 노아의 方舟를 타고 물의 審判에서 살아 남을 수 있었던 地上의 被造物은 아훼(神)의 差等主義思想에 따라 選別된 一部였다. 이 差等主義에서 비롯된 階級主義는 自然과 人間의 關係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人間과 人間의 關係에도 通用되어 異敎를 邪敎로 보고 스스로 옳다고 믿는 信仰의 布敎를 위해서는 聖戰까지도 肯定하는 투쟁적인 宗教로 발전해서 오직 아훼나 알라만을 믿는 一神敎는 階級支配를 前提로 한 不寬容의 宗教로 되지 않을 수 없었다. 헌팅턴教授의 文明論 이 終末思想과 아울러 人類의 滅亡을 자초할 戰爭의 勃發을 뜻하는 것이라면 危險千萬이라는 비판이 있다.

宗教의 誕生에는 風土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宗教란 人間이 自然과의 交流속에서 體系化시킨 思想體系이기 때문이다. 天地에는 처음과 끝이 있다는 基督教의 世界觀은 砂漠에서 發想된 것이고 天地萬物은 永遠히 流轉을 거듭한다는 佛敎의 世界觀은 숲에서 발상된 思考이다. 無生命의 砂漠에서 神에 의한 天地創造를 생각하고 靜寂만이 깃든 砂漠에서 終末論을 聯想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이것이 神 → 人間 → 自然이라는 階級主義를 낳고 神이 創造한 有機的의 生命世界를 人間에게 다스리게 했다는 人間中心의 思考를 굳게 믿게 한 根源이었다. 한편 숲속은 生命이 充滿해 있고 豐饒롭기 짝이 없다. 그리고 숲은 季節에 따라 모습을 바꾸고 숲 속의 生命은 죽음과 再生을 되풀이한다. 이러한 숲에서는 生命없는 大地에 神이 天地를 創造하거나 終末에 이를 것이라는 發想이 나올 수 없다. 이곳에서의 發想은 永遠하게 流轉을 거듭하는 輪廻轉生의 概念뿐이다. 이것은 循環的 世界觀으로 終末을 향해 一直線으로 진행하는 砂漠의 直線的 世界觀과 對比되는 것이다. 숲은 거친 風土이기도 하였다. 壓倒的인 自然의 힘이 人間을 곤경으로 몰아 넣는다. 이리해서 人間이 有機的 世命生命을 다스린다는 생각보다 나무, 짐승, 산이나 江과 같은 人間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을 人

間의 生命과 똑같은 平等한 價値나 때로는 그 以上の 價値를 지닌 神 으로서 崇拜하게 되었다. 이것이 “梵我一如”(宇宙의 근본원리인 梵과 개인의 중심인 我가 동일하다)라는 汎神論으로 發展하였고 「山川草木國土悉皆成佛」로 佛敎의 思想體系의 原點이 되었다.

一神敎의 唯一神은 暴風雨의 神(야훼, 바알神)이었다. 多神敎의 많은 神 가운데 하나였던 暴風雨의 神이 得勢하게 된 것은 紀元前 1,200年경의 氣候의 乾燥化에 의한 大地의 荒廢가 契機였다. 그리고 氣候의 乾燥化로 砂漠에서 밀려난 牧畜民이 農耕地 集落에 侵入해 들어와 자기들의 信仰을 農耕民에게 普及시킨 것도 暴風雨의 神을 一神敎로 만드는 契機가 되었다. 이리해서 해부라이 사람들의 暴風雨의 神 야훼는 猶太·基督敎의 唯一神으로 되고 시리아나 레바논에서 信仰의 대상이었던 바알神은 알라로 되어 이슬람敎의 唯一神이 되었다. 같은 時期 그리스에서도 暴風雨의 神 제우스가 큰 힘을 갖고 있었으나 그리스에는 乾燥化가 심하지 않았고 아직 숲이 우거져 있었던 관계로 一神敎로 발전하지 않았음은 興味로운 일이다.

一神敎는 숲을 消滅시키고 砂漠化를 進行시키며 擴大되어갔다. 12세기이후에 시작된 알프스以北 유럽에 基督敎가 보급되면서 森林破壞가 宣敎師들의 開拓이란 이름 아래 進行되었음은 주지의 事實이다.

15世紀以後 아메리카도 마찬가지였다. 아메리카 原住民이 살던 北美은 숲의 天國이었다. 基督敎徒가 入植한 후 불과 300년 사이에 美國의 숲은 80%가 消滅되었다. 이렇게 砂漠이라는 無生命의 荒野속에서 誕生한 一神敎는 砂漠化라는 風上의 荒野性을 끌고 다니는 것이다.

日本에는 普及되지 않는 基督敎가 韓國에서 繁盛하는 理由가 무엇이나고 하는 現代家敎學者의 수수께끼의 하나를 놓고 兩國의 숲의 모습을 原因의 하나로 들고있는 主張도 있다. 韓國에는 山은 있으되 숲이 없다는 것이다. 巨木을 보아야 巨木이 지닌 生命에 대한 畏敬心을 실감할 수 있고 砂漠의 荒野에서면 終末世界를 實感한다는 것이다.

佛敎의 五戒와 舊約聖書의 十戒銘을 比較해보면 興味롭다. 五戒(衆生을 죽이지 말 것, 흠치지 말 것, 淫行하지 말 것, 거짓말하지 말 것, 술 마시지 말 것.)에서 첫 번째로 밝힌 佛敎의 倫理는 殺生의 禁止로 되어있다. 그 殺生도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것에 그치지 않고 衆生을 죽이지 말라고 타이르고 있다. 衆生이란 모든 사람과 動物을

통틀어 이르는 諸有 즉 宇宙間에 존재하는 有形·無形의 모든 事物(諸法)을 뜻한다. 그러나 舊約聖書 出埃及記에서 밝힌 十戒銘(야훼이외의 다른 神을 섬기지 말 것, 偶像을 만들어 절하고 섬기지 말 것,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 것, 安息日을 지킬 것, 아버지를 恭敬할 것, 殺人하지 말 것, 姦淫하지 말 것, 도둑질하지 말 것, 이웃에게 不利한 거짓 證言을 하지 말 것, 이웃의 아내·노비·家畜 따위의 所有를 탐내지 말 것)은 一神敎의 敎理를 앞세우고 殺生禁止는 여섯 번째로 들고 있는데 그것도 佛敎의 衆生과는 달리 사람의 殺生에 局限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佛敎의 一切衆生悉有佛性(一切의 衆生에는 모두 佛性이 있다. 涅槃第27章)이라는 多神論的 思想과 現世의 모든 事物現象은 本來 空無하나(般若心經: 色則是空), 空(萬物의 眞理)은 色(萬物의 現象)의 밖에 存在하는 것이 아니라 眞理가 그대로 萬物의 現象이라는(空則是色) 佛敎의 모든 生命에 대한 同質性을 인정하고 있는 敎理를 理解할 수 있다.

이것은 오늘날의 環境倫理에서 人間中心主義가 是非되는 것과 관련해서 볼 때 큰 示唆을 준다고 하겠다. 다만 人間의 慾望을 抑制하는 裝置로서의 宗教의 役割을 생각할 때 主日마다 敎會(聖堂)에 나가 牧師(神父)의 說敎를 듣거나 하루에도 몇 번씩 메가를 向해 拜禮하는 一神敎에 비해 매일 또는 週中定會를 갖지 못하는 佛敎의 경우 三聚淨戒(모든 惡을 끊어 버리는 것: 攝律義戒, 모든 善을 스스로 닦는 것: 攝善法戒, 모든 衆生을 敎化하여 惡을 없애고 利益을 주는 것: 攝衆生戒)의 理想을 살려 人間의 慾望을 抑制시키는 裝置로서의 宗教로는 큰 弱點이 아닌가 생각된다.

税金免除라는 特權을 등에 업고 宗教界의 腐敗와 名譽慾에 사로잡혀 賣名行爲를 일삼는 聖職者들의 妄動 그리고 敎祖崇拜에 사로잡혀 敎祖의 敎義에 執着하고 있는 宗教學者들의 狹量은 모두 오늘날의 宗教가 人間中心主義로 墮落하였음을 뜻하는 것 같아 가슴아프다.

4. 舊約聖書의 自然觀

Lynn White교수는 행태론적 견지에서 구약성서의 내용이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글을 발표한 바 있다("The Historical Roots of Our Ecological Crisis", *Science*, 155:3767, March, 1967). 舊約聖書 創世記에 의하면 神(야훼)은 빛과 어둠,

하늘, 물과 바다, 풀과 과일나무, 낮과 밤, 고기와 새, 들짐승과 집짐승을 차례로 창조하고 끝으로 사람을 자기모습처럼 만들었다. 그리고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 또 집짐승과 모든 들짐승과 땅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짐승을 다스리게 하자”(제1장 26절)

“자식을 낳고 번성하여 온 땅에 퍼져서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위를 돌아다니는 모든 짐승을 부려라”(제1장 28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온 땅위에서 낱알을 내는 풀과 씨가 든 과일나무를 준다. 너희는 이것을 양식으로 삼아라”(제1장 29절)

“아담은 집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 이름을 붙여 주었다”(제2장 19절)

이처럼 창세기에는 神(아훼)의 天地創造에서 사람을 제일 마지막으로 만들고 앞서 만든 動物을 支配·征服하는 방법으로 管理케 하였으며 植物을 糧食삼아 에덴동산에서 자식을 낳아 번성하도록 축복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간교한 뱀의 유혹으로 善惡果에 손을 댄 人類의 선조인 아담과 하와를 에덴동산에서 몰아내고 그 후예의 타락으로 세상에 罪愆이 가득찬 것을 보다 못해 물로 審判하게 된다.

지상의 被造物을 모두 滅種시키는 물의 심판에서 例外가 되는 것은 전나무로 만든 배(方舟)를 타고 난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느님이 배려한 노아의 가족(노아 내외와 세 자식의 부처)과 몸을 가지고 호홉하는 모든 動物(한쌍씩)이었다. 여기서 창세기가 밝히고 있는 差等主義가 깃들여 있다. 모든 動物은 짝을 지어 전부 구제하였지만 인간은 노아의 가족 네쌍을 제외하고는 모두 멸망시켜 착한 사람과 타락한 사람을 구별하여 대했고 그리고 둘째로는 동물의 경우에도 “깨끗한 짐승은 종류를 따라 암컷과 수컷으로 일곱 쌍씩, 부정한 짐승은 암컷과 수컷으로 두쌍씩, 공중의 새는 암컷과 수컷 일곱 쌍씩, 땅위를 기어다니는 길짐승은 암컷과 수컷 두쌍씩을 배에 데리고 들어가 온 땅위에서 각종 動物의 씨가 마르지 않도록 하라고(제7장 2절, 3절, 8절)지시한 것이다. 이것은 뒤에 와서 共產主義理論의 階級主義의 원형이 된다. 40일 동안의 暴雨로 물이 불어나 “새나 짐승이나 들짐승이나 땅위를 기던 벌레나 사람등 땅위에서 움직이던 모든 生物이 숨지고”(제7장 21절) 살아 남은 것은 노아와 함께 배에 있던 사람과 짐승뿐이었다. 다만 植物은 폭우가 그치고 난 후 이레만에 밖에 내보냈던 비둘기가 돌아올 때 부리에 금방탄 올리브 이파리를 물고 돌아온 정도의 언급에 그치고 있다.

물의 심판을 통해 새로운 세계가 전개되었다. 이때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또다시 인간의 우월성을 바탕으로 하는 자연의 지배를 축복한다.

“많이 낳아 온 땅에 가득히 불어나거라.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위를 기어다니는 길짐승과 바다고기가 다 두려워 떨며 너희의 支配를 받으리라. 살아 움직이는 모든 짐승이 너희의 양식이 되리라. 내가 전에 풀과 곡식을 糧食으로 주었듯이 이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준다”(제9장 2절, 3절).

한편 기독교의 資源樂觀論은 마태福音 제6장 25절-34절에 잘 나타난다.

“너희는 무엇을 먹고 마시며 살아갈까. 또 몸에는 무엇을 걸칠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공중의 새들을 보아라. 그것들은 씨를 뿌리거나 거두거나 곳간에 모아들이지 않아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먹여 주신다, 너희는 새보다 훨씬 귀하지 않느냐?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목숨을 한시간인들 더 늘일 수 있겠느냐? 또 너희는 어찌하여 옷 걱정을 하느냐? 들꽃이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그것들은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이 꽃한송이 만큼 화려하게 차려입지 못하였다. 너희는 어찌하여 그렇게도 믿음이 적으냐? 오늘 피었다가 내일이면 아궁이에 던져질 들꽃도 하느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에게야 얼마나 더 잘 입혀 주시겠느냐? 그러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는 무엇을 입을까하고 걱정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모두 이방인들이 찾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잘 알고 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라. 그러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에 맡겨라. 하루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만으로 족하다」.

유태교, 기독교, 이슬람교는 舊約聖書を 모태로 태어났다. 유태교는 탈무드(Talmud)를 기독교는 신약성서(The Testament)를 그리고 이슬람교는 코란(Koran)을 각각 독자적인 聖典으로 갖고 있지만 구약성서만은 공동된 原典으로 믿고 있다. 구약성서의 아훼(Yhwh: 이슬람교에서는 알라 Allah라고 함)는 天地創造를 한 造物主人 「唯一絕對의 神」이다. 이들 종교는 「아훼」, 「알라」, 또는 아훼의 아들인 「예수」만을 믿는 唯一神宗教이다. 물론 「그리스神話」나 「로마神話」가 말해주듯 원래 유럽인들은 多神教를 믿었던 것이다. 그러나 구약성서를 중심으로 유태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차례로 태어남에 따라 一神教로 된 것이다. 그리고 기독교라고 하지만 이에는 3대세력

이 있다. 로마카톨릭교회(라틴어 의식)와 東方正敎會(그리스어 의식), 로마카톨릭교회에서 宗教改革으로 떨어져 나온 프로테스탄트敎會가 그것이다. 각 교회에는 많은 敎派가 있다. 카톨릭교회의 아우그스티누스修道會, 베네딕트수도회, 프란시스코회 등 종파와 동방정교회의 그리스正敎會, 러시아 정교회, 루마니아정교회등 종파와 프로테스탄트 敎會의 영국국교회, 장로파, 루터派敎會, 침례교파, 퀘이커교파 등이 그것이다. 이슬람교에도 「시아派」, 「순니派」의 대립이 있다.

지난날 화려했던 페르샤의 영광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이란」의 國敎는 시아派 이슬람교이다. 이슬람原理主義 急進派는 시아派지만 이슬람교 전체로 보면 신자수가 10%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9할은 모두 순니派에 속한다. 과격한 급진파가 분파 되어 나가고 남은 세력이기 때문에 이상만을 앞세우는 시아派와는 달리 순니派는 現實主義를 택해서 때로 妥協도 할 줄 안다. 유대교는 「유대인에 의한 유대인을 위한 유대인의 종교」로 되어 있어서 1,200만의 신자밖에 없다. 그러나 選民思想으로 굳게 뭉친 유대교를 중심으로 하는 유대인들은 지금 세계의 정치·경제·문화의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다(<表-5>참조).

〈表-5〉 三大 一神敎의 比較

구 분	유 태 교	기 록 교	이 슬 람 교
神 對 象	야훼	야훼	알라
信 仰 者	야훼	야훼(父) 그리스도(子)	알라
聖 典	舊約聖書 탈무드	舊約聖書, 新約聖書	舊約聖書, 코란
豫 言 者	舊約의 예언자	舊約, 新約의 예언자	최후가 모하메드
메 시 아	終末대에 등장	예수 그리스도	알라
예 수 觀	반역자	神의 아들	예언자
聖 都	예루살렘	예루살렘	메카, 메디나, 예루살렘
聖 職	라비	神父 牧師	無
偶 像	絶對禁止	一應은 禁止	絶對禁止
斷 食	有	無	有
安 息 日	토요일	일요일	금요일
割 禮	有	無	有
自 然 觀	支配·征服	支配·征服	支配·征服

5. 環境保護史의 變遷

오늘날 西歐文明을 대표하는 美國을 중심으로 環境問題에 대응한 歷史를 살펴보면 크게 3段階로 時代區分을 할 수 있다. 自然保護時代(19세기 후반부터 1960년대까지), 環境保護時代(1960년대 초기부터 1970년대 초기까지), 生態系保護時代(1970년대 이후)가 그것이다.

미국의 自然破壞의 역사는 유럽으로부터 大量移民이 시작된 17세기부터 시작되었다. 宗主國 英國에 대한 一次資源(木材, 農産物)의 供給地였던 美國의 大自然은 차례로 파괴되어 갔고 開拓精神(frontier spirit)의 발로라고 찬양 받는 美國內에서의 開發은 原住民의 虐殺과 野生生物의 濫獲, 그리고 自然景觀의 파괴로 이어졌다. 다윈(Charles Darwin, 1809-82)의 進化論이 人間도 다른 生物과 마찬가지로 地球上의 하나의 種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일깨워 줄 때까지 美國에서는 “萬物의 靈長”이라는 人間의 利益을 위한 自然破壞가 스스로없이 진행되었다. 19세기 中半期 東海岸으로부터 西海岸에 이르는 鐵道가 개통되어 더 이상 開發(파괴)할 境(프론티어)이 없어질 때까지 聖書敎理에 따른 階級主義와 人間優位論을 바탕으로 하는 原住民虐殺과 自然破壞는 자행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19세기 後半期에 들어와 自然의 偉大함을 깨달은 先覺者들이 출현해서 自然保護運動이 展開되었다. 뒤에 “全美오듀본協會”(1905)를 설립한 鳥類學者 John J. Audubon, 시에라클럽(Sierra Club, 1892)을 創設한 美國自然保護의 아버지라고 尊敬받는 John Muir(뮤어)등이 代表的인 自然保護論者들이었고 이들은 1872년에 세계 최초의 國立公園을 옐로우스톤(Yellowstone)에 창립하는데 成功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自然을 保存(preservation)하려는 운동에 대해 自然의 保全(conservation)이나 賢명한 利用(wise use)을 내세우고 現實과 妥協한 自然保護論者들도 많았다.

內務部 林野局의 初代局長이었던 Gifford Pinchot가 代表的인 人物이다. 핀쇼오는 뮤어의 自然保存思想(自然에 손을 대지 말고 原生的인 狀態를 維持시켜야 한다는 生態中心的인 自然保護思想)에 맞서서 自然保全(自然을 적당히 管理하면서 持續적으로 利用해야 한다는 人間中心的인 自然保護思想)을 主唱했다. G. 핀쇼오는 뒤에 大統領(1901-1909)이 된 T. 루우즈벨트의 친구였고, 獨逸에 유학 가서 森林管理學을 배우고 온 人物이었다. 1891년에 森林保護法(Forest Reserve Act)을 만들어 國有林制度를 도

입하고, 1897년에는 森林經營法(Organic Administration Act)을 만들어 國有林을 計劃的이고 效率的인 方法으로 賢明하게 利用하는 方案을 導入했다. 그리고 內務部 林野局(뒤에 農林部 林野局)의 初代局長이 되었다. 1930年代에 들어와 自然主義者이고 哲學者인 Aldo Leopold 와 林學者이고 登山家인 Robert Marshall은 原生自然協會(Wilderness Society)를 1935년에 설립했다.

A. 레오폴드는 死後出刊된 「모래나라의 달력」(*A Sand County Almanac*, 1949)등을 통해서 人間과 自然의 關係를 土地倫理를 통해 自然은 存在하는 것 自體로 價値가 있는 것이기에 人間은 自然을 害쳐서는 아니 된다고 力說하였다.

두차례에 걸친 世界大戰이 끝난 후 각종 軍需産業이 民需産業으로 轉換됨에 따라 戰爭武器로 開發된 科學技術의 産物이 民間消費를 통해 環境破壞問題를 몰고 왔다. R. Carson의 “沈默의 봄”(*Silent Spring*, 1962)은 工業化 社會의 化學物質의 毒을 규탄했다. 이것은 環境保護時代의 開幕이었다. 殺蟲劑 DDT에 의한 人間の 健康이나 生物에 대한 惡影響을 告發한 카슨女史의 活動은 곧 全美國에 큰 波紋을 불러 일으켰다.

Barry Commoner의 “*The Closing Circle*”(1971)도 이에 加勢했다. 이때 世界各地에서 일어나고 있는 公害로 인한 비참한 被害가 계속 報道되고 있었다. 1948년 펜실 베니아州에서 일어나 다노라事件(유황산화물의 스모그로 20명이 死亡하고 住民의 40%가 罹病), 1952년의 런던스모그 事件(445명이 즉사하고 4천명이 기관지병으로 死亡), 1956년의 日本 水 (미나마타)病이 公式發見(1995년까지 1,193명이 사망, 1,063명이 罹病)되는 등 公害問題는 深刻해 갔다. 더욱이 1959년부터 介入하기 시작한 越南戰爭에 대한 反戰運動은 枯葉劑(에이젠트 오렌지)作戰을 비판하기에 이르렀다. 1961년부터 71년까지 76,000kl의 枯葉劑가 越南의 정글에 뿌려졌는데 이에는 發癌性 다이옥신이 포함되어 있어서 越南國民은 물론 美國등 參戰國家의 軍人들에게 癌發病, 不妊病, 先天性 畸形兒出産 등 막대한 被害를 주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時代의 背景을 통해 美國의 自然保護團體들은 反公害 環境保護團體로 轉換되어 政府에 環境立法을 강력하게 要求하게 되었다. 이것이 國家環境政策法(National Environment Policy Act, 1969)을 위시한 大氣清淨法(Clean Air Act, 1963), 大氣質法(Air Quality Act, 1967), 水質法(Water Quality Act, 1965)등 環境立法을 마련하는 契機가 되었다.

그러나 抵抗도 컸다. 예를 들어 自動車排氣가스 規制를 위한 法律(머스키法)이 制定될 때 美國內 自動車製造業界는 변호사 500명을 사들여 實施時期를 延長시켜, 技術者 500명을 고용해서 技術開發을 한 日本의 自動車業界에 밀려나 한때 日本의 自動車市場으로 化한 美國이 되기도 했다. 聯邦立法에 대한 州政府의 姿勢도 微溫的이었다. 聯邦法에 따라 規制主體가 된 州政府는 企業側의 南部移轉威脅에 이겨내지 못해 淨化裝置에 대한 投資를 꺼리는 企業을 善導할 수 없었고, 失業을 두려워하는 地域住民을 무마할 길이 없어 聯邦法制가 州의 獨立을 侵害한다는 反撥까지 있었다.

1970年末에 들어와 地球環境問題의 深刻性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1979년의 드리마일섬(펜실베니아州)事件과 1986년의 체르노빌事件(舊소련), 1984년의 印度 보팔에서 일어난 유니온 카바이트社에 의한 化學工場 有毒가스 流出事故를 비롯해 酸性비, 오존층破壞, 地球溫暖化, 熱帶雨林的 保護등 汎地球的 環境問題가 顯在化함에 따라 環境問題는 生態界保護時代로 접어들었다. 1972年 스톡홀름會議(UNCHE)后 1973년에 나이로비에 설치된 國際聯合環境計劃(UNEP)은 國境을 넘어서는 環境問題와 地球環境問題에 正面으로 대응하기 始作했다. 그리고 20年후에 열린 리우會議(UNCED, 1992)에서는 持續可能한 開發을 地球環境問題를 解決하는 하나의 키워드로 採擇했다. 그러나 이러한 持續可能한 開發(sustainable development)이란 人間中心主義의인 종래의 環境觀을 部分的으로 수정한 것에 不過하다고 反旗를 들고나온 deep ecologist들의 活躍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노르웨이의 哲學者 아르네 네스(Arne Naess)가 1972년에 發表한 論文(*The Shallow and the Deep, Long-Range Ecology Movement*)으로 불이 붙은 生態學的 自然保護運動은 지금 全世界의 自然保護運動을 리드하고 있다.

6. 環境倫理와 開發論理

環境倫理(Environmental Ethics)는 1960년대 말부터 미국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윤리이론이다. 모든 윤리이론이 實踐의 필요성에 자극되어 마련되는 것처럼 環境倫理學도 한없이 자행되는 自然破壞나 심각하게 진행되는 地球生態界의 危機를 어떻게 막아야 하는 가라는 절박한 실천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윤리이론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보다 넓은 環境哲學의 영역을 구축해가고

있다. 倫理란 사람이 社會的 關係에 있어서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道理를 말해 왔다. 따라서 인간의 행위가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윤리적 판단을 내리지 않았던 것이다. 자연에 대한 우리들의 행위는 그것이 인간에게 害가 되거나 得이 된다고 하는 功利主義的관점에서 「좋다」거나 「나쁜」 행위라고는 했지만 자연 그 자체를 위해 「좋다」거나 「나쁘다」라고는 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나무를 자르는 행위를 평가할 때 「남의 나무를 함부로 잘랐다」(他人의 所有權侵害)라든가 「좀 더 키운 다음에 잘랐으면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 되었다」(經濟的인 損害)거나, 「아름다운 꽃을 더 이상 못 보게 되어 섭섭하다」(美的鑑賞의 機會喪失)는 따위로 그 나무를 자른 행위가 人間에게 미치는 영향은 평가했어도 나무자체를 위한 평가는 하지 않았다. 물론 그 나무가 神靈이 깃들어 있는 靈木인 경우 그것을 자르는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때에도 그것은 그 나무가 자연의 차원을 넘어선 「超自然」적 존재로 되어 있기 때문이고 그 나무를 자름으로서 무언가 人間사회에 「不幸한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금지한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인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내린 價値評價라고 하겠다. 傳統的 社會에서는 자연물에 대한 이와 같은 약속이 있어서 인간에 의한 자연파괴가 억제되어 왔다. 그러나 근대에 와서는 自然物은 순전히 經濟的 合理性에 의한 操作의 對象으로 되어 버렸다. 이러한 人間行爲의 대상이 나무가 아니라 動物인 경우에는 어떠할까? 88올림픽을 앞두고 영국의 여배우 「부리짓드 발도」는 개고기를 먹는 야만인들이 주최하는 올림픽에 참가하는 것을 보이콧하자는 운동을 전개했다. 우리의 주변에도 개를 잡는 동물에 대한 殘虐行爲를 비난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動物愛護運動」은 동물의 生命을 빼앗는 행위자체보다는 비난의 표적은 그 행위의 잔학성에 있다. 따라서 동물애호란 인간이 베푸는 하위동물에 대한 慈悲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기에 인간의 사랑을 받는 愛玩動物에 극한 된다. 영국의 여배우가 소를 잡아 만든 스테이크를 먹지 않는다는 소리를 못 듣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개가 아니라 모기나 파리나 쥐는 물론 소나 말이나 양을 잡아죽이고도 태연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인간에 대한 영향을 중심으로 가치평가를 하고 있는 증거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인간의 행위 중에서 倫理的 評價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인간에 대한 행위에만 국한되고 인간이외의 존재에 대한 인간의 행위는 윤리적 가치의 평가대상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윤리로서는 自然環境에 대한 인간의 행위의 윤리적인 가치평가를

할 수 없고 오히려 자연환경을 파괴시키는 인간행위를 인간의 福祉增進을 위한 自然利用으로 밖에 볼 수 없기에 환경문제에 유효하기 위해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윤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環境倫理學은 이러한 과제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구축된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表-6>은 지금까지 거론되고 있는 環境倫理에 관한 主張을 정리한 것이고 <表-7>은 環境을 바라보는 開發論理의 差異點을 밝힌 것이다.

7. 公共事業과 環境問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公共事業이라는 이름아래 환경을 파괴해 온 사례는 우리 주변에 허다하게 많다. 高速道路나 高速鐵道를 건설하고, 바다의 개펄을 막아 干拓地를 만드는가 하면 댐과 河口둑을 막아 河川生態를 뒤바꾸어 놓고, 國際體育行事를 빗대 特別法까지 만들어가며 경관이 수려한 야산이나 國立公園을 마구잡이로 파헤쳐 놓고 스키장이나 골프장을 만드는가 하면 주민의 同意없이 發電所나 核廢棄物貯藏所를 건설해 온 지난날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최근 始華湖事件을 계기로 새만금 방조제 건설 문제가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아직도 우리 나라에서는 일반국민의 公共事業으로 인한 환경파괴문제에 대한 관심은 그다지 높은 편이 아니라고 하겠다. 따라서 일부 環境團體들의 외로운 싸움을 예외로 한다면 각종 공공사업은 地域住民에 의하여 地域開發이란 이름아래 환영받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企業體에 의한 公害排出에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국민들의 환경의식도 공공사업의 환경파괴문제에는 관대한 편이라고 하겠다. 큰목소리를 내는 少數國民의 開發壓力을 감당할 수 없어 환경정책을 후퇴시킨 現정권은 IMF사태를 배경으로 출발한 만큼 환경의 논리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經濟의 論理로 바라보고, 경제의 논리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政治의 論理로 해결할 개연성이 높다. 그린벨트의 해제를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바라보고 選舉公約이니까 무조건 관철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 現정권이 안고 있는 經濟危機의 극복책으로 무시할 수 없는 것이 景氣浮揚策과 內需擴大策인 까닭에 公共事業의 투자증가는 불가피하게 되어 있다.

公共事業이 環境問題를 발생시키는 原因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公共事業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公共團體가 행하는 土木建築事業을 말

한다. 그 속에는 道路, 港灣, 空港 등과 같은 生産基盤整備事業이나 宅地造成, 住宅, 上下水道 같은 生活基盤整備事業과 治山治水, 海岸保全과 같은 國土保全事業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公共事業에는 두 가지 특징이 따른다. 그 하나는 官僚組織의 특색에서 나오는 것이다. 行政組織은 주어진 여건(公務員數, 豫算, 法的權限 등)을 최대한으로 動員해서 최대한의 目標을 달성하려는 체질이 있다. 따라서 적정 예산으로 큰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다보니 불필요한 경비의 지출에 인색하게 된다. 이때에 環境保全對策費는 불필요한 경비로 되어 절약해버리는 대상이 된다. 때마침 불고 있는 規制緩和 바람의 그릇된 해석은 이러한 경향을 부추겨 주게 마련이다. 그 둘째는 政·官·業 삼자의 癒着이라는 부패에서 오는 것이다. 政治資金이 아쉬운 부패된 정치꾼들이 예산책정부터 受注業者 결정까지 官에 압력을 넣고 업자로부터 獻金을 받고 業者는 官·政에게 헌납한 돈을 제외한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날림공사가 되게 마련이고 환경영향대책을 소홀히 하게 마련이다.

공공사업이 환경파괴를 몰고 오는 직접적인 요인은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地域開發이나 國土開發이 經濟優先을 목적으로 하고 成長至上主義를 택하고 있는 까닭에 公

〈表-6〉 環境倫理의 基盤

	人間中心主義 (Anthropocentrism)			人間非中心主義 (Non-Anthropocentrism)		
	個人中心主義 (ego-centrism)	社會中心主義 (socio-centrism)	修正人間 中心主義	感覺主義 (sentientism)	生命中心主義 (bio centrism)	生態界中心主義 (eco centrism)
自然觀	機械論	機械論과 全體論		有機體論(全體論)		
追求利益	自己利益	功利主義的	未來世代·公正性	生態科學的		
宗教倫理	유대·기독교(創造主 唯一神의 權威)			佛敎 道敎 美大陸原住民思想		
義務의 基盤	自己利益의 最大化 各個人의 利益은 全體社會의 利益 이 된다	最大多數의 最大의 善 社會正義	自然과 人間의 共存 持續可能한 開發 (sustainable de- velopment) 追求	모든 生物과 無生物은 그 自體價値를 갖는다. 生態界의 統一性, 安定性, 多樣性, 調和 人間과 宇宙의 存續, 環境全體에 대한 義務 生態界의 法則에 따른 合理的 科學的 信念體系		
主唱者 (勢力)	T. Hobbes, J. Locke, A. Smith, T. Malthus, G. Hardin	J.S.Mill, G. Bentham, Social ecofeminist, 左翼Greens	IUCN의 環境保全 戰略(wise-use), Brundtland Report, Rio 宣言, Shallow Ecologist	T.Regan, P.Singer, 動物權·動物解 放論者	P.Taylor등 自然尊 重論者	J.Lovelock의 Gaia 理論, A.Leopold의 共同體모델, A.Naess등 Deep ecologist

(表-7) 環境과 開發에 관한 4大 基本的 姿勢

技術中心主義 (technocentrism)		生態界中心主義 (ecocentrism)	
技術樂觀主義 (optimism)	調和型開發主義 (accomodation)	地域社會主義 (communalism)	가이아主義 (gaianism)
人間の 能力과 技術進歩는 無限하다. 自由主義經濟下에서는 環境問題도 市場메카니즘에 맞기면 充分히 解決된다. 우선 開發하고 保全은 뒤에 하자. (H.Kahn, J.Simon)	社會制度나 環境影響評價制度를 올바르게 活用하면 環境破壞를 막을 수 있다. 開發과 保全은 兩立할 수 있다. 環境破壞로 인한 損失은 開發에 따른 成長으로 얻어지는 利得을 再投資하면 充分히 補充될 수 있다. (環境管理型對應)	開發은 適正한 技術과 地域社會의 資源에 바탕을 둔 小規模開發에 限定시켜야 한다. 地域社會의 協力, 適正技術이나 民主的인 個人이나 社會는 構築할 수 있다. (E.F.Schumacher- small is beautiful)	人類와 自然의 共存에 의한 進化와 人間을 超越한 自然의 法則을 믿는다. 自然生態界의 保全, 持續可能性의 原則을 絕對視하고 이것을 모든 人間活動의 規範으로 삼는다. (J.Lovelock)

共事業의 環境影響을 2차적인 것으로 보거나 아주 無視하는데 있다. 다음으로 생각할 문제는 環境影響評價制度의 미비성이다. 개발주체가 영향평가 조사책임을 진다는 점(전문기관에 위탁), 평가대상사업과 항목이 불합리하다는 점등으로 인해 환경영향평가가 濫開發의 免罪符로 되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공공사업의 實施主體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行政의 官僚制度 문제로 된다. 行政의 繼續性이라고 하는 관료조직 특유의 論理에 따라 사업실시과정에서 환경상의 문제가 제기되더라도 사업을 중단시킬 수 없는 것이 官僚制의 체질이다. 환경문제를 이유로 하는 住民의 反對輿論에 부딪쳐 사업이 중지되는 前例를 만든다는 것은 앞으로의 公共事業 추진을 힘들게 하는 것이기에 일단 完工시켜서 장래의 行政에 불편한 전례를 만들지 않겠다는 行政優先의 사고가 강하게 작용한다. 뿐만 아니라 國家가 추진하는 공공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침묵을 지키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行政權力의 상하구조도 문제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公共事業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지역주민만이 아닌 전국적 예지를 짜낼 수 있는 방안을 公共事業의 意思決定過程에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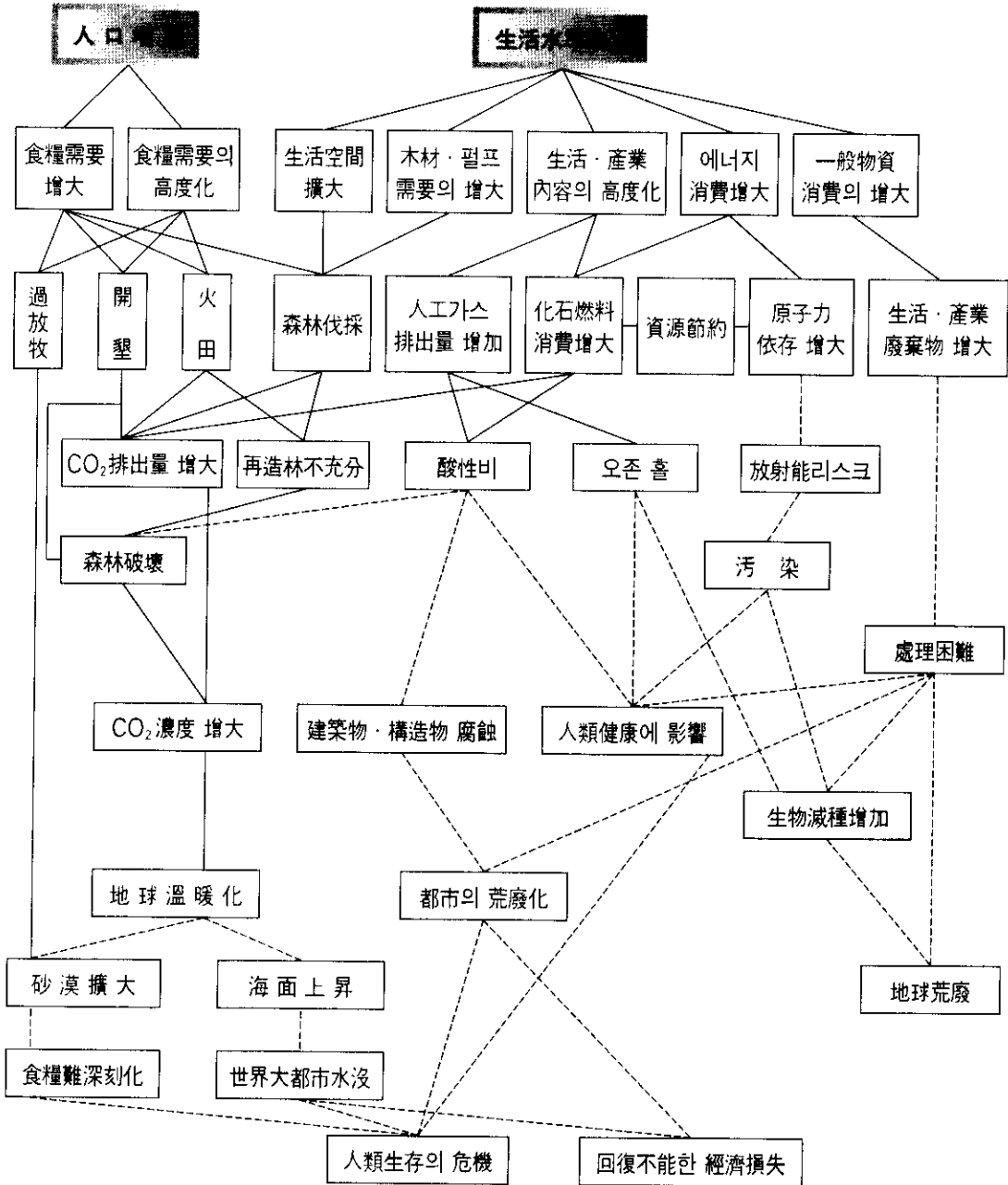
8. 近代文明의 危機와 地球環境問題

文明史를 중심으로 人類와 環境의 관계를 살펴보면 自然을 구성하는 많은 生物의 種 가운데 하나의 종에 지나지 않는 人間은 自然의 일부이면서도 反自然的인 모습으로 살아왔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두 다리로 똑바로 서서(兩足直立) 걸어 다닐 수 있게 된 人間은 步行에서 해방된 앞다리 즉 손으로 곧 道具를 만들어 쓰게 되었고, 다른 動物에 비해 발달된 大腦(큰 골)로 불을 만들어 쓰고 말(言語)을 만들어 피차 간에 의견을 교환하고 기억하는 능력까지 갖추게 되었다. 도구, 불, 그리고 말은 곧 人間을 자연속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앉게 만들었고 文明創造를 통해 끊임없이 環境을 이용해서 慾望을 채우는 脫生物的 驕慢을 부리며 살게 만들었다. 人間은 만물의 영장(靈長)이라고 자처하면서 자기필요에 따라 環境질서를 마음대로 바꾸어가며 살아온 것이다. 이리해서 46억년에 이르는 地球의 역사, 35억년에 이르는 生物의 역사를 통해 형성·발전되어온 地球環境·生態界의 질서를 400만년에 지나지 않는 人類의 짧은 역사를 통해 교란시켜온 것이다. 그리고 최근 몇 백년 동안에 人間이 추구해 온 物質文明은 樂觀的 進步思想과 아울러 科學技術의 뒷받침을 통해 수질오염, 대기오염, 토양오염, 소음, 진동, 악취, 지반침하와 같은 地域的 産業公害를 몰고 와 地域住民의 健康을 해쳐왔고 급기야는 地球環境問題를 몰고 왔다. 地球溫暖化, 오존층破壞, 酸性비, 熱帶雨林 파괴, 海洋汚染, 砂漠化 등 全地球的 規模로 몰아닥치고 있는 地球環境·生態界가 심각하게 대립상태에 빠진 위기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表-8>은 지금 人類가 當面하고 있는 地球環境問題의 全貌이다.

直線的 思考와 終末論을 믿는 西歐文明의 視覺에서 보면 地球環境問題의 深刻性은 人類의 生存을 크게 威脅하는 것으로 보인다. 現在의 趨勢가 終末을 향해 치닫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輪廻思想을 바탕으로 하는 循環的 思考方式으로 오늘날의 추세를 보면 이것은 반드시 終末을 뜻하는 것만은 아니고 어떤 契機가 되면 다시 後退하게 될 것으로 보게 된다. 다만 그 契機가 무엇인가를 直視하고 우리들의 自然觀을 바꾸어 生産과 生活에 變化를 줄 수 있도록 努力하는 것만이 重要하게 된다. HIEM

〈表-8〉 地球環境保全의 여러 가지 問題



※ ① 近隣公害나 地域的으로 對處할 수 있는 問題는 除外하였음.

② 實線은 現實的으로 일어나고 있는 因果關係, 點線은 原因을 放置했을 경우 일어날 수 있는 因果關係를 나타내고 있음.